



튀르키예 성지순례 ②

사도행전 성지순례: 소아시아 교회들을 찾아서(2)

튀르키예에 일정 셋째 날, 우리는 하얀 석회봉의 파곡같은데가 있는 히에라폴리스를 방문했다. 온천수로 유명한 이곳 히에라폴리스는 갑바도기아와 함께 튀르키예의 대표적인 관광지이다. 무엇보다 이곳 히에라폴리스에는 사도 빌립의 순교터와 기념교회가 있고 사도 바울의 편지(골 4:13에서 이곳에 교회가 있었음이 언급되기에 성지순례에 있어서도 중요한 일정이다.

도시 이름 히에라폴리스는 성스럽다는 '히에로스'(holy)와 도시를 의미하는 '폴리스'(city)의 합성어로, '성스러운 도시'라는 의미이다. 고대인들은 지하에서 솟아나는 온천에 녹아진 광물질들로 정신적, 육체적 치료를 했고, 로마 시대에는 유력자들이 인생 말년에 이곳 온천에 몸을 담그며 치유하다가 조용히 생을 보낸 곳이다. 덕분에 이곳에는 대규모 공동묘지(네크로폴리스)가 발달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곳 도시 사람들은 치유와 내세에 대한 현실적 필요에 민감했기에, 초대교회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과 치유사역은 그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다(사도 바울의 제자이자 골로새 출신 에브라가 사역을 했고, 사도 빌립, 이곳 출신인 사도 요한의 제자 교부 파피아스가 사역을 했음). 그러나 복음이 크게 역사하는 곳에는 마귀의 역사도 큰 법인지라 이곳 히에라폴리스에서는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 사도 빌립이 순교를 하게 된다.

히에라폴리스는 도시유적과 온천지대, 원형극장, 사도 빌립 순교기념교회 등이 넓게 펼쳐져 있어 도보로 이동할 경우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들어, 대부분 온천지대에서 발 담그고 사진 찍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우리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면서 일정을 모두 소화하고자 전동킥보드를 타고 로마시대의 히에라폴리스 도시를 거쳐, 언덕 위에 있는 원형극장만 오전 명 수목 가늘을 방문했다. 여기서 체력이 되는 사람은 산 중턱에 있는 사도 빌립 순교기념교회를 도보로 방문하고, 나머지들은 온천지대에서 발을 담그고 기다리기로 했다.



사도 빌립 순교교회

사도 빌립 순교기념교회는 사도 빌립의 순교를 기념하여 5세기경 이곳 도시의 주교에 의해 빌립의 시체가 발견된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이다. 초대교회 문서들에 의하면 그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갈라디아에서 지금의 프랑스 땅이 된 골 지방에 루아켈라오, 헤트 안다바가 유배된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한 뒤 다시 히에라폴리스에 돌아와 순교한 사도이다.

이 교회는 8각형 구조의 특징적인 교회인데, 20m×20m의 정사각형 건물터 중앙에 8각형 형태의 큰 방과 그 면을 따라 8개의 중간방이 건축되어 있어, 이를 팔복의 의미를 담은 8개의 작은 예배당이 보이며 팔복교회로 말하기도 한다. 문틀마다 다윗의 날이 조각되어 있다.

빌립의 무덤은 2011년 7월 말 고고학팀이 교회 건물 지하에서 빌립의 무덤을 찾았다. 무덤 내부의 구조와 글 등을 통해 사도 빌립의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원래 무덤이 있다고 알려진 곳에서 약 40m가량 떨어져 있다.

히에라폴리스 기준은 북서쪽 18km 떨어진 곳에는 골로새, 북동쪽 9km 떨어진 곳에는 라오디게아가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이 세 도시는 한 권역 안에서 서로 이웃하며 왕래가 잦았다. 골로새는 셀류쿠스 왕조 때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로 크게 성장하여, 유대인들이 많이 살던 국제 무역도시였다. 그러나 로마시대로 들어와 라오디게아 도시가 새로 건설되면서 골로새의 상권과 금융이 라오디게아로 옮겨짐에 따라 쇠퇴해 갔다. 이러한 도시의 쇠퇴와 함께 각 도시에 있던 교회들 역시 역할과 중심이 변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골로새 출신 에브라가 교황에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히에라폴리스와 라오디게아를 함께 감독했던 것으로 보인다(골 4:13, 15~16). 이것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당시에는 골로새가 중심 도시였음을 추측케 하는 부분이다. 이후 라오디게아 도시가 성장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발전하게 되는데, 후에 계시록에서는 부흥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게 된다. 오늘날 우리가 골로새를 방문하면 낮은 언덕 구릉에 가시와 잡초들만 뒤덮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골로새를 잠시 방문한 우리는 이제 라오디게아로 향했다. 라오디게아는 동방최대의 면직/모직생산지로 무역의 중심지여서 재력이 풍부해 부족함이 없던 도시였다. 라오디게아는 후발도시였기에 물을 기존 도시인 히에라폴리스에서 끌어다 썼는데, 끌어온 물이 온천수라 라오디게아로 유입되는 동안 그 물이 식어 미지근한 물이 되었다. 이것을 배경으로 계시록에서는 라오디게아교회를 책망할 때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고 말한 것이다. 또한 이 온천수는 악몽으로 눈에 효과가 좋아 라오디게아에서는 이 물로 안약을 만들었다. 이것 역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교회를 책망할 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말씀의 배경이 된다.

우리는 골 4:15~16을 통해 라오디게아교회가 늙어가는 여인의 가정집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라오디게아 도시가 크게 번성하게 되므로, 라오디게아교회 역시 많은 인구와 부자들의 유입으로 성장하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계 3:17에서 '너는 스스로 부자라 부오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신 것을 통해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친 사도교회의 모습과 유사하다. 부요와 안락을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기며 안주하고 있을 때 주님은 너희가 웃을 때 앓아눕혀 버리고, 미혹되어 눈이 멀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교회를 책망하고 권면하시는 계 3:14~22의 내용은 한 가지 중요한 배경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리는 앞에서 라오디게아교회와 골로새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받은 편지를 서로 돌이키며 회상했던 것을 살펴봤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교회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교회에 편지한 내용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특히 골로새교회의 감독인 에브라가가 라오디게아교회를 돌볼 때면 분명히 이 편지를 읽으며 가르쳤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골로새서를 통해 라오디게아교회가 알고 있던 개념들로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오디게아교회에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창조의 근본이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은 골로새서의 내용(골 1:15~18)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골로새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뿐 아니라 합당하게 행하여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골 1:9-12, 26-8 등), 한마디로 매 장에서 '말씀대로 행할 것'을 권면한다. 그러나 라오디게아교회는 자신들이 받은 교훈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예수님으로부터 너희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상태, 곧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 있다고 지적을 받은 것이다.

특히 외부적인 환난이나 곤고하고, 한술 더 떠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하고 있고, 성도들의 생업이 잘되어 현금을 많이 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책망이 두아디라교회나 사도교회에게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라오디게아 기념(비잔틴시대) 교회

현재 있는 라오디게아교회 유적지는 비잔틴 시대의 유적으로서 이전 교회터 위에 다시 비잔틴 시대의 교회가 덧입혀진 것이다. 최근에 제우스 신전이 발굴되었는데, 신전터 아래에서 비잔틴시대 교회보다 더 오래된 옛 라오디게아 교회터가 나왔다. 도시의 규모, 시설 등과 함께 변형된 교회를 보며, 다시 한번 주님의 책망을 새겨본다. 무엇보다 눈에 보이는 허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을 볼 수 있는 안약을 사서 세상을 다시 새롭게 보아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라오디게아교회를 끝으로 우리는 7대 교회 순례를 마치고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지였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 향했다. 그리스에서의 2차 전도여행지, 에베소와 부근에서 3차 전도여행지를 순례하고, 이제 우리는 1차 전도여행지로 나아가는 것이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기원전 200년 때 바벨론에서 약 2,000세대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이주하여 왔는데, 그들 대부분이 귀족과 부자들이었다고 한다. 또 기원전 23년 때는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식민지로 건설하려 퇴역한 군인들이 거주하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곳에 정착한 유대인들이 제일 부유한 때여서 유대인들도 많았고 회당도 여러 개 있었다.

전승에 따르면 구브로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공적을 많이 쌓아 황제로부터 이곳에 땅을 많이 하사받은 덕에 친족들과 친구들이 많이 살게 되었기에 사도 바울에게 자신에게처럼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길 요청했다고 한다. 갈라디아 지방의 핵심도시이면서 유대인 커뮤니티도 잘 형성되어 있고, 총독의 부탁도 있었던 곳이라 사도 바울과 바레사는 비시디아 안디옥-이고니온-루스드라-테베-다소-수리아 안디옥의 동선으로 1차 전도여행정을 짰을 것이라 짐작된다.

행 13:14~15에는 안식일 날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앉았고, 회당장이 그날 읽어야 할 토라표절을 읽은 뒤 외지에서 온 바울에게 그 말씀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강권할 기회를 주는 장면이 나온다. 그 당시 회당에는 일반인들이 많은 자리와 랍비들이 앉는 자리가 구분되어 있었다. 그렇기에 바리새인이자 랍비였던 바울은 바리새인 복장을 하고 일부러 랍비들 자리에 가서 앉았을 것이다. 대(大)랍비 가마리엘로부터 사사를 받았을 뿐 아니라 자기만의 성경해석을 강해할 전자자(적)미가를 갖춘 랍비가 예루살렘에서 왔으니 회당에서는 적극적으로 그의 강론을 듣고 싶었을 것이다. 이제 그는 사도행전에 3번 나오는 설교 중 첫 번째 설교를 이곳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게 된다. 그리고 구원은 율법으로 이뤄질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최초로 이곳 회당에서 설교하게 된다.

바울의 설교는 기존 유대인들과 회당에 나온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들에게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그다음 주에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머무는 한 주 동안 자신들을 찾아오는 유대인과 경건한 재해(바)를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의 입소문으로 인해 다음 안식일에는 성안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게 된다. 아마 비시디아 안디옥의 다른 회당 사람들도 바울의 소문을 듣고 그다음 주에는 바울이 강론하는 회당으로 몰려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에 이방인들이 기쁘게 반응한다.

이러한 무리들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해져 사도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회당예배에 참석하던 경건한 이방인들 중 귀부인들을 선동하여 그 성의 유력자들인 자기 남편들을 통해 바울 일행을 그곳에서 쫓아내게 한다(행 13:42-43).

오늘날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방문한 곳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회당교회이다. 이곳은 이전에는 회당이었으나 나중에 회당교회로 바뀌게 된 곳이다. 회당이 교회가 된 곳! 여기아팔로 행 13장의 장면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실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우리는 복음이 역사한 실제 현장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사도 바울의 사명과 복음의 생명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이어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비시디아회당교회

우리는 다음 일정인 이고니온으로 향했다. 이고니온은 오늘날 콘스탄티노폴리스(이스탄불)의 도시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버스도 2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곳이다. 그 당시 사도 바울 일행은 도보로 이동했다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 걸렸을 것이다. 우리들은 저녁 9시가 되어서야 이고니온에 도착해 여정을 풀었다. 이곳은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영적인 곳이어서 오늘날에도 이슬람 종교에서 신비주의적 색채가 강한 메블라나파의 본산이기도 하다.

두 사도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게 된다. 물론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고니온 사람들을 선동하지만, 비시디아 안디옥과 달리 두 사도는 오랜 시간 이고니온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고, 주님은 두 사도를 통해 많은 표적과 기사로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표현에 주목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오래 있어"로 이 말은 이고니온에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 양육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두 사도들이 행한 표적과 기사를 성령은 주님께서 그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 행하신 것이라고 하여 주제가 두 사도가 아닌 주님이심을 명확히 하신 것이다.

그 결과 이고니온에는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교회)과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들(회당)로 나뉘게 되고,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위협한다. 그들이 돌로 치려고 했다는 것은 유대교의 종교법에 의거 이단으로 간주했기에 돌로 치려 했던 것이다. 이에 두 사도는 이제 이고니온을 떠나 루스드라로 피신하게 된다(행 14:1~5).

튀르키예에 일정 넷째 날, 이고니온에는 성경시대의 특별한 흔적들이 거의 없어 우리는 그다음 일정인 루스드라로 향했다. 현재 루스드라로 알려진 곳은 모두 세 곳이다. 오늘날 이슬람 국가인 튀르키예에서 세 곳 다 발굴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데, 이것은 때때로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이곳 루스드라는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로마로부터 심한 박해가 있었던 초대교회의 흔적(킬리스트라)이 뚜렷이 존재하기에, 오늘날 성지순례를 할 때 이 세 곳은 반드시 찾아가 봐야 하는 곳이다.

바울과 바레사는 이곳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앉은뱅이를 고침으로 사람들로부터 신의 현상으로 추앙받는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뒤쫓아 온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 바레사는 돌에 맞아 죽게 된다. 혹자들은 이때 그가 삼촌들을 데려왔다고도 하는데(고후 12:2-4), 마을 밖 무연고자 무덤에 버려진 그가 다시 살아나 일행은 짐을 챙겨 테베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 테베에서 복음 전하기를 마친 바울 일행은 이제 원래 계획대로 계속 동진하여 다소로 넘어가면 된다. 무엇보다 죽기까지 돌 맞은 바울의 몸은 아직 온전히 살아있도록 고향 다소로 가서 요양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들이 세운 아직 어리고 약한 교회를 격정하여 그들이 복음을 전하 온 그 길을 다시 거꾸로 돌아가고자 한다. 무엇보다 루스드라-이고니온-비시디아 안디옥은 자신을 돌로 쳐 죽인 자들이 있는 곳이다. 그곳으로 간다는 것은 스스로 다시 죽으러 간다는 의미다. 그렇게 돌아간 그들은 각 성의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 면 환난을 견디야 할을 도전한다. 그런 죽음을 각오한 신앙을 전수 받은 그들은 다시 그 믿음을 후대로 전수한다. 그리하여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전까지 갖은 박해를 받았던 그들은 루스드라 외곽 사막지대로 피신해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갔는데 그곳이 오늘날의 '킬리스트라'이다.



킬리스트라 동굴지대

그들은 산 중턱 바위들의 2~3층 높이에 동굴을 파서 집을 마련하고 생활하며, 더 높고 깊은 바위틈에 동굴을 파서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그 지붕에는 하늘을 향해 십자가를 다듬어 교회를 만들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생명을 건 복음을 통해 그들도 또 다른 바울이 되었던 현상이다. 생명을 걸고 전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생명을 건다. 그러한 모습이 선명히 나타나는 곳! 이곳 킬리스트라의 교회와 성도들의 흔적이다. 이곳에 올라 바위를 파서 만든 교회와 동굴 안 벽에 새겨진 한줄 한줄 고백들은 이들이 생명과 믿음을 담아 썼던 흔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이어서, 이곳에서 주일예배를 올려드리며, 오늘날 우리 믿음의 후손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잡을 수 있었다.

킬리스트라를 뒤로 하고 우리는 갑바도기아로 향했다. 이곳 갑바도기아에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지하동굴에서 생활했던 아시아의 카타콤베가 있는데 바로 '테린쿠유'이다. 테린쿠유 지하도시의 최대 깊이는 85m 지하 7층 규모인데, 안전상의 문제로 지하 30m까지만 공개 중이다.

이곳은 기독교인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형성된 곳이지만,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는 말씀의 빛, 영적인 빛을 불리기 위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연한 누렸던 햇빛을 포기하고 지하동굴에서 일생을 살았던 기독교인들의 삶의 현장이기에 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이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28~32살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14~16세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가 자라 결혼을 할 즈음에는 삶을 마감해야 했다. 이곳에서 그러한 신앙생활이 지속 가능하게 했던 두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고, 또 하나는 '학교'였다.

빛이 없어도 그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자녀를 낳아 신앙과 교육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찾아나갔다. 함께 갔던 고등학생 4명이 있었는데, 인간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에 대한 실존적 고민을 하는 나이 때의 아이들인지라 충격과 도전을 받은 것 같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답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고 있었다. 오전의 킬리스트라에 이어 오후에 테린쿠유의 현장은 성도들이 최고의 가치를 위해 자신의 가치를 기꺼이 버렸던 삶의 실체이자 믿음의 현장이었기에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아이들에게 강력한 질문과 해답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2명은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이것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구하며 방향하는 친구라면 성지순례가 그에게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일날 킬리스트라와 테린쿠유를 방문한 사람들은 앞으로 고향으로 돌아가 어떤 예배,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각자의 마음에 충분한 정리와 되돌음을 줄 것이다.

튀르키예에 일정 다섯째 날, 오늘은 어찌와는 달리 관광과 액티비티가 많은 비교적 가벼운 일정이다. 새벽부터 인생 버킷 리스트 중 하나로 꼽히는 갑바도기아 열기구타는 것을 필두로 갑바도기아 사막을 지프차로 구석구석 다니는 시간들이 각자의 선택 속에 이뤄졌다.

그리고 스머프 마을의 원형인 각종 기암괴석으로 이뤄진 괴뢰매 경관지구 곳곳에서 사진들을 담으며, 모두들 소년 소녀처럼 즐겁게 뛰어다녔다. 아마 집에 돌아가 사진을 정리하면 제일 많은 사진들이 이곳 갑바도기아에서 찍은 것들일 것이다.



갑바도기아

이곳 갑바도기아는 기암괴석만큼이나 유명한 것이 바위동굴 수도원들이다. 이곳에는 세상을 등지고 오직 예수님만을 추구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데 헌정된 수도자들이 많이 있었고, 이들의 신앙은 교회사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 특히 이들은 삼위일체 신학을 견고히 세워 이단 아리우스주의를 대적하였는데, 대표적인 사람으로 가이사라의 바실, 그의 친구인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바실의 동생인 님타스의 그레고리우스가 있으며, 이들은 갑바도기아 교부들이라고 부른다. 이제 우리는 이른 저녁을 먹고 카이세리 공항을 통해 이스탄불로 향했다. 이스탄불에서 숙박 후 내일 오전엔 잠시 아이소피아 성당을 방문하는 것과 보스포루스 해협을 배로 유람 후 귀국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튀르키예 성지순례는 막을 내리게 된다.

튀르키예에 일정 마지막 날, 우리는 짧은 오전 관광을 마치고 공항으로 향했다. 출국 수속을 다 마치고 게이트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지난 시간에 대한 소감들을 짧게 서로 나누었다. 사도 바울이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했으며, 그 복음을 이후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지켜왔는지 현장을 통해 실감나게 느끼며, 그 복음이 결국 돌고 돌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었음에 감사했다. 무엇보다 그 복음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바티를 이어받아 전해야 할 사랑의 빛에 서로 공감하며 감사했다. 무엇보다 고등학생 4명 중 2명이 선교사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인생을 복음 전하는데 드리고자 결심한 것을 보며, 이들을 성지로 견인한 보람과 나의 사명을 느낄 수 있어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감사를 올려게 된다.

글 · 송창엽 목사
시티미선교회 협동목사, 헤브리라이트미니스트리 대표
debtor610@hanmail.net